

전략 2 **예방적·통합적 건강관리 중심의 지역보건서비스 강화**

기존 치료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예방중심의 보건의료로 전환하여, 예방 및 건강관리 내실화로 마포 구민의 건강수준 향상

추진과제 1 **생애 초기 건강투자 확대로 건강한 미래세대 형성**

<p>추진배경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‘출산율 저하’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여성·영유아 건강증진 추진 필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마포구 합계출산율은 ‘16년 0.945명→’17년 0.806명으로 전년대비 0.139명 감소하였으며 전국평균 1.05명에 미달 ○ 고령 임신부 출산율 증가로 건강한 출산을 위한 고위험 임신부 산전관리 필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마포구 35-39세 출산율은 ‘14년 44.3명→’16년 51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서울시 49.8명보다 1.2명 높음 - 40~44세 출산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 ○ 여성가구주 증가로 취약여성·영유아에 대한 지속적 건강증진 요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‘17년 마포구 여성가구주 비율은 35.7%로 서울시 32.49%보다 높음 ○ 모유수유 실천율 감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‘17년 마포구 모유수유 실천율 24.58%은 서울시 24.38%보다 높으나 전년도 28.8% 대비 4.22%감소하여 노력필요
<p>추진목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22년까지 출산지원 확대 운영 지원체계 구축 및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산후도우미 이용 비용 중 본인 부담금(306~520천원)을 구에서 추가 지원 ▶ 2018년 : 법적 제도적 기준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산후조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방침 및 조례제정, 예산확보(구청장공약사항) ▶ 2019년 :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산후조리비 본인 부담금 지원(400천원이내) ○ 2022년까지 임신부 등록 관리율 85% 달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17년도 실적 83% / 지난 5년간 등록 관리율 83.38% → 2022년 85% 달성 ○ 2022년까지 임신부·영유아 빈혈 개선율 50%대 유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난 5년간 빈혈 개선율 52.62% → 2022년까지 50%대 유지 ○ ‘모든 출산 가정에 가정방문을’ 목표로 찾아가는 건강서비스 운영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‘16.6월 사업 실시 / ‘17년 실적 33.2% → 2022년 까지 37% 달성 ○ 2022년까지 건강한 미래세대 형성을 위한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2년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 73% / 의료급여 영유아 건강 검진수검률 61.4% 달성 ○ 2022년까지 자조 모임 운영 활성화 및 모성건강 프로그램 운영 향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맘스 자조 모임 4개 운영 / 모성건강 프로그램 100회 이상 유지

추진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초저출산 대책 마련으로 출산친화 환경 조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초저출산 대책 방안을 위한 구 자체 출산지원 확대 및 장기대책 마련으로 ‘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마포’ 구현 - 산후도우미 이용비 중 국가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금액 이외의 본인 부담금 구에서 추가로 지원(400천원 이내) - 건강한 임신, 육아를 위한 각종 의료비 지원으로 출산,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 감소 ○ 모자건강센터 원스톱 임신부 건강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임신전부터 육아까지 체계적이고 질적인 원스톱 건강관리 서비스제공 - 지역내 취약계층 임신부 발굴 강화 및 고령 임신부 관리 강화로 건강형평성 제고 - 임신부 등록시 적극적인 산전 평가로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, 산전 조기 개입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양육 지원 ○ 임신부·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로 건강형평성 제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모든 출산가정에 가정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운영 확대 및 집중 관리 - 지역별 특성 및 보건소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차등 없는 방문 간호 수행 - 동주민센터 및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적극적인 연계 협조 강화 ○ 영유아 건강검진 집중 관리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영유아 건강검진 독려 및 적극적인 홍보로 수검률 관리 - 관내 영유아 건강검진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공단과의 협력 강화 ○ 임신부·영유아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운영 활성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결혼이주여성, 미혼모 시설등 취약계층 임신부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- 주민 요구도가 높은 다양한 육아·출산 지원 프로그램 운영 - 엄마모임 및 자조모임 활성화로 나눔, 육아 정보 공유를 통한 부모 역량 강화
-------------	---

추진과제 2 사면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능력 강화

추진배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불규칙한 생활 습관,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, 당뇨, 동맥경화 등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건강검진을 통한 만성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필요 ○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모든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향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
-------------	--

<p>추진배경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세계보건기구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암 발생인구의 약 1/3은 조기 발견하여 치료 할 경우 완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○ 미국, 영국,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 암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, 우리나라에서 흔히 발생하는 암의 경우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으며 조기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90%이상 완치 가능 ○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암발생과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 의료 접근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암검진사업 필요 ○ 저출산 및 노령화 따른 구강건강 관리의 관심이 높아져 구강관리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됨 ○ 대다수의 국민이 구강병을 경험하였고 치아우식증 및 치주염 발생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교육 및 실습을 통한 구강관리의 중요성 인식이 필요함
<p>추진목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: 최근 5년 평균수검률 31%→ 2022년 35% -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건강검진 수검률 : 최근 5년 평균 수검률 40%→2022년 44% ○ 국가암검진 수검률 향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2년까지 국가암검진 수검률을 서울시 및 전국 수준으로 향상 - 최근 5년간 평균 수검률 40.19%→2022년 43% ○ 만5세 치아우식 경험률 감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만5세 치아우식 경험률 최근 5년 평균수검률: 62% → 2022년 58.9% ○ 치실 및 치간칫솔 사용률 향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치실 및 치간칫솔 사용률 : 최근 5년 평균수검률: 43.6% → 2022년 49.3%
<p>추진내용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의 건강생활 향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돕고자 함 -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 및 건강 관리 필요성 홍보 - 맞춤형 건강검진 정보를 제공하여, 검진 사후 건강행태 개선을 도모 - 관내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력 강화

추진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암검진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의 암을 조기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하며,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고자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암수검 대상자에게 지속적인 홍보 및 안내로 암검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여 수검률을 향상하고자함 - 암 검진기관을 유치하여 수검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암검진을 실시하고자 함 ○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을 통해 구강보건인식향상 및 치아우식 경험률 감소로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구강질환 조기발견으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
-------------	---

추진과제 3 건강생활실천 실현 확산을 통한 구민 건강증진

추진배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구민의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한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은 건강한 삶의 질 유지에 중요한 정책임 ○ 건강생활실천의 포괄적인 지표인 건강생활실천율을 높이기 위해 금연, 절주, 걷기사업의 통합적인 사업전개 필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회적으로 확대 및 강화되는 금연사업 운영과 음주에 관대한 인식개선 및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절주 사업 운영으로 마포구의 고위험 음주율의 지속적인 감소 필요 - 구민의 높은 걷기실천율과 높은 영양표시활용률의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비만 예방 및 관리 사업이 필요
추진목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17년 마포구 건강생활실천율 53.8% → 2022년까지 47.4%으로 유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마포구 건강생활실천율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현재 수준 유지 및 향상목표로 최근 3년간 평균값인 47.4%을 목표로 설정 - 2017년 마포구 현재흡연율 16.5% → 2022년까지 16.5% 유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→ 서울 18.8%, 전국 20.1%로 마포구는 현재의 높은 수준지표가 유지될 수 있도록 16.5%로 설정. - 2017년 마포구 고위험음주율 15.7% → 2022년까지 14.9% 달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→ 최근 5년간 증감을 반복하는 지표의 양상으로 일정비율 0.2% 감소 설정 - 2017년 마포구 걷기실천율 70.2% → 2022년까지 63.1% 유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→ 서울 61.%, 전국 39.5%로 마포구는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걷기실천율의 3년치 평균치 63.1%로 설정.

추진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금연·절주 등 생활습관개선을 위한 상담·교육·치료서비스 확대 및 건강 생활실천 환경 조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단계별 금연구역 확대로 금연환경 조성 - 지역사회 중심(생활터별, 생애주기별)의 금연 및 절주 교육, 환경 조성 - 금연 및 절주 등 생활습관개선 홍보 강화 - 흡연자 금연촉진을 위한 금연클리닉 활성화 ○ 식생활개선 및 신체활동 기회 확대로 비만예방 환경 조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생애주기·생활터별 식생활 개선 및 신체활동 증대 사업 - 사업체 식생활 개선 및 신체활동 증대 사업 - 건강자조모임 활성화 및 취약계층 지원서비스 제공 - 지역자원 연계 및 활용 ○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취약계층 건강증진사업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취약계층(지역아동센터, 장애인시설) 영양교육·과일지원 및 신체활동지원 - 취약계층 임산부·영유아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제공
-------------	--

전략 3 민·관 연계 협력을 통한 건강관리체계 구축

다양한 보건·의료·복지 자원이 사업별, 기관별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 사회 건강관리서비스를 연계와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지역사회 건강관리 체계 구축

추진과제 1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만성질환 예방·관리체계 구축

추진배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구 고령화와 질병부담 증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급속한 노령화와 평균수명의 증가는 노인의 주요질환인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장애부담초래(마포구 사망원인 2위 심장질환, 3위 뇌혈관질환) - 마포구 고혈압, 당뇨병으로 인한 질병부담은 약 297억원 (201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) ○ 30세 이상 성인의 경우 비만, 고혈압, 고콜레스테롤혈증 등 만성질환 유병률 전반적으로 증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마포구는 서울시 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나 고혈압 유병률(2008년 18.0% → 2017년 21.7%), 당뇨병 유병률(2008년 18.0% → 2017년 21.7%) 증가 추세 ○ “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관리” 사업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(‘17년 5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만성질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일차의료기관의 생활습관 및 질환관리 교육, 안내, 조정, 등 안내자 역할 강화
-------------	---

<p>추진목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건소-민간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2년까지 만성질환 주치의사업 참여의원수 매년 2개소씩 증가 (2019년 20개소 → 2022년 28개소) ○ 원스톱 만성질환관리 마포건강관리센터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2년까지 대사증후군 검진인원 10,000명 유지 ○ 만성질환 건강교실 운영으로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2년까지 고혈압·당뇨 건강교실 운영 40회 유지 - 고혈압·당뇨병 관리교육 이수율은 매년 결과값 편차가 크므로 최근 5년간(2013~2017년) 평균치 90% → 2022년까지 5년 평균값 90% 유지 ○ 만성질환예방 및 심뇌혈관질환 조기증상 인지율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2년까지 자기혈관 숫자알기 홍보 및 캠페인 실시 25회 유지
<p>추진내용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건소-민간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만성질환 주치의사업을 통해 국정과제인 민간의료기관(동네의원) 중심 만성질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일차의료 기관의 생활습관 및 질환관리 교육, 안내, 조정 등 안내자 역할 강화 - 보건소, 지역의사회,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체 구성 및 MOU 체결 - 민간의료기관에서 의뢰된 만성질환자 협력관리 및 역할 분담 - 만성질환자의 약물치료율 향상을 위한 투약관리체계 마련 ○ 원스톱 만성질환관리 마포건강관리센터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사증후군검진(만20~64세)을 통한 위험군 조기발견 및 추구관리 -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검진연계 등록관리 - 대사검진에서 발견된 고위험군 심혈관조기검진 및 일차진료실 연계 - 생활터(직장), 건강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대사증후군 건강상담운영 - 가장 많은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잠재적 건강취약계층이지만, 시·공간적 제약으로 건강관리가 어려운 직장인 대상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실시 - 금연, 신체활동 증진 등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금연클리닉, 운동 처방실 운영 ○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만성질환 건강교실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마포건강관리센터, 16개 마을건강센터를 통해 발견된 질환자 건강교실 연계 - 방문간호사 및 복지관에서 발견된 건강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만성질환예방 관리교육 실시 - 보건소, 지역사회(복지관, 경로당 등)에서 질병관리본부 표준 교육실시 - 심장사망률 감소 위한 “심장질환 응급증상 발생시 대처방법” 동영상 교육 - 의약과와 협조하여 건강교실 참여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및 홍보 ○ 만성질환예방 및 심뇌혈관질환 조기증상 인지율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언론매체를 통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홍보 : 지역신문, 지역방송 - 다중이용시설 및 지역행사 연계 “자기혈관 숫자알기” 캠페인 전개 - 온라인 홍보 매체 활용 : 홈페이지, 소식지(뉴스레터), SNS 등 - 옥외광고매체 홍보 : 전광판, 버스, 지하철 등

추진과제 2 고령사회 대비 의료-돌봄-관리체계 강화

<p>추진배경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마포구 노인인구(13.16%)와 독거노인(전체노인인구 중 20.99%)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○ 노인진료비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사회, 경제적 부담 증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65세 이상 진료비는 17년 27조1,357억원으로 전년대비 10.5% 증가 - 중증치매환자 1인당 의료비용은 경증치매환자의 8배로 치매예방과 조기발견이 중요 ○ 마포구민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요구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노인건강문제 중 해결노력이 필요한 사항 중 치매예방 및 관리 선택 (33.6%) - 향후 4년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보건의료서비스: 치매관리 (23.5%) <p>→ 고령사회 대비 노인 중심의 통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의 필요</p>
<p>추진목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치매안심센터 신축 및 조직 정비로 통합적 치매관리서비스 체계 구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2년까지 치매안심센터 신축 및 조직체계 1개팀 12명 → 5개팀 25명으로 증원 - 치매등록관리율 2017년 13.5% → 2022년까지 30% 달성 ○ 보편적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65·70세 도래자 등록률 2017년 48% → 2022년 40% 유지 ※ 2016년 시작된 사업으로 초기 신규빈곤가정 집중발굴로 등록률이 높았음 - 2022년까지 의료, 복지 등의 자원 연계 방문간호사 1인당 200건 유지 ○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돌봄협력 체계 구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마을 중심의 노인돌봄체계 구축: 2017년 1개동 → 2022년까지 8개동으로 확대 - 치매노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후견인 선임 지원 : 10명 지원
<p>추진내용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치매안심센터를 거점으로 하는 예방, 검진, 치료 및 돌봄을 위한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치매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치매안심센터 신축 및 운영 - 5개팀 25명으로 인력 증원 및 조직구성을 통해 통합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 -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병·의원, 요양시설과의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역할 분담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찾동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확대로 보편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지속 확대: 매년 신규 65세, 70세 도래자 등록관리 - 건강 취약자에 대한 포괄적 건강관리서비스 지속 제공 - 어르신 자가건강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소규모 건강프로그램 운영 - 건강 및 복지 문제 발생시 지역내 의료, 복지자원과의 연계 ○ 유관기관, 관련 부서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돌봄체계 구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치매노인의 사회활동과 자기결정권 존중, 인권보호를 위한 후견인 선임 지원 - 건전한 돌봄문화 확산을 위한 치매파트너, 파트너플러스, 선도 단체 등 양성 확대 - 치매안심마을의 점진적 확대로 마을 중심의 자발적 노인돌봄체계 구축 - 보건소·구청·주민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노인돌봄 자원 연계 - 어르신돌봄통합센터, 노인복지관, 장기요양운영센터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대상자 연계
--	--

추진과제 3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돌봄체계 강화

추진배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살은 마포구 주요 사망 원인 4위로 마포구 사망률과 건강수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예방적 개입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 필요 ○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,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시급히 개입해 해결할 문제 ○ 자살 등 정신건강 문제 대두 및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저조에 대응한 중증정신질환자 관리, 정신건강 예방관리, 자살 조기개입 체계 구축 필요
추진목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22년까지 자살률 20명 이내, 연간 자살자 수 70명 이내 달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16년 자살률 22.6명 / 자살자 85명 → 2022년 17.0명 / 64명 ○ 2022년 말까지 4년간 누적 자살자수 총 84명 감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근 4년간 누적 자살자수 362명 → 2019~2022년 4년간 누적 자살자수 278명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22년까지 중증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17년 중증정신질환자 삶의 질 41.5% → 2022년 43% ○ 2022년까지 4년간 중증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유지율 향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17년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유지율 93.1% → 2022년 94.6%
<p>추진내용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민·관 협치를 통한 생명존중문화 확산 및 자살고위험군 발굴체계 구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역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생명존중 캠페인 활성화 및 자살 관련 언론 보도 개선 - 자살예방 민·관 협력체계 구축하여 정기적인 네트워크 간담회 실시 -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통한 자살고위험군 발굴체계 구축 및 고위험군 지지체계 강화 - 우울·자살 스크리닝 및 상담 강화 ○ 다층·중층적 자살예방 지킴이 양성 확대로 자살 선행요인 집중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구민 대상 게이트키퍼 교육으로 빈틈없는 인적 발굴망 구축 - 지역사회 인적안전망 핵심그룹 게이트키퍼 교육 우선 실시 ○ 보건·복지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복지 전달체계 개선 및 사례관리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증정신질환자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도 충족을 위하여 사례관리 과정에서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빈틈 없는 보건·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- 서울형 집중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례관리 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 ○ 정신질환자의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사회복귀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퇴원환자 지역연계 촉진을 위한 정신 의료기관과의 정기적 활동 수행 - 중증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및 재활에 필요한 대인관계, 자기관리 등의 다양한 기술습득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 제공

추진과제 4 주민참여기반 보건-복지-의료-마을을 연계한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

<p>추진배경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생활권 접근을 통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고 필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인구대비 지역보건기관 인력은 매우 적은 편이며, 보건사업의 확산과 효과성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다각적인 접근 전략을 통해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 필요 - 복지와 건강은 협업관계가 강화되면 서비스 제공의 시너지 효과가 증대하며 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짐 -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보건의료사각지대 존재로 생활권 지역보건 의료기관인 보건지소 확충 요구
--------------------	---